

“템플스테이 4배 지원”

기획예산처 올 예산 150억 ... 외국인 상설국제선센터 건립비 50억 책정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지원액을 지난해 보다 4배 증액했다. 기획예산처는 “템플스테이 사업을 매력적인 한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액 35억원 보다 4배 증가한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월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홍보·운영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시설보장비는 25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상설 국제선센터건립비 50억원도 새롭게 책정됐다.

기획예산처의 이 같은 방침은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호응도가 높은 템플스테이 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비를 지난해 349억원 보다 2배 늘어난 695억원을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템플스테이 확대 시행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화관광부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템플스테이는 한국 전통불교 문화공간인 사찰에서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여가문화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며 “올해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다양화 등 질적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증액과 관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이석심 차장은 “템플스테이가 한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문화관광부 등과 논의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화재관람료 인상 정부가 승인?

국회 문공위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인상 한도를 정부가 직접 승인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4명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인상을 법으로 규

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징수 사항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병문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한 뒤 단독 징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수정해 관람료 징수나 인상시 문화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제하시켜 관람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해의 소망 담은 정초기도

서 함장으로 발원했다. 지난 22일 서울 봉은사 ‘정해년 정초 산림기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정월 초사흘인 2월 20일부터 전국의 사찰에서 정초기도 법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한 해의 소망과 서원을 부처님 앞에 올리고 있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새 연재 안내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8면(다음주부터)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는 이번호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주부터는 불교상담개발원 권경희 사무총장이 상담심리학과 불교를 연재합니다. 개인의 생활과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상담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학문적 견해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눈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라 13면
‘세익불자를 카운시드’ 캠페인 지면인 13면에 ‘눈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라’와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가 연재됩니다. 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 독서비결과 체크 포인트를 짚어 줍니다. 또 헛갈리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말들을 비교하며 정확한 어휘 구사력을 돕습니다. 이 코너는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반 강사 안명옥 시인이 지도합니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콘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경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깨달음의 기회
용정운(www.zentoon.com)

수행자는 자신 앞에 놓여진 험난한 산과도 같은 장애를 장애라 여기지 않고 수행의 과제라고 여깁니다.
나는 수행자에게 조물조물하지 않습니다. 가장 거친 난관을 깨달음의 기회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 世象 鏡
심우암, 암자 이름 같다.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이다. 그가 일하는 곳은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 그의 명함은 ‘서울 지역팀 안국점 매니저’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매장 방문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 틈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불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기억된다.
‘아름다운 가게’의 아름다운 사람들
심우암씨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쓰던 작은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수 있다. 이는 인식의 이웃과 내가 틀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호점은 다른 지역점에 비해 행운이 많다. 행사란 단체 등이 기부한 물건을 정해진 기간동안 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행사가 없는 날도 영명이를 의자에 붙일 틈이 없지만 행사가 있는 날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다. 전날 밤 늦도록 물건을 정리해 두고 당일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등 승강 장치 (등표 조경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중등 팔각봉축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